

溫琬 시의 내용과 특징*

권 응 상**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V. 지순한 애정 |
| II. 유가 학문과 선비적 인격 | V. 나가며 |
| III. 자존감과 고상함 | |

I. 들어가며

본고는 필자의 <溫琬의 삶과 문학예술>¹⁾에 이어지는 후속 연구로서, 기 연구가 온완의 삶과 문학예술 전반을 개괄적으로 다루었다면 본고는 온완 시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내용과 특징을 보다 자세하게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가 기 논문에서 밝혔듯이 온완은 대략 宋代 至和 연간에 태어나서 熙寧 연간까지 활동하였으며, 송대 기녀문인 가운데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는 송대를 대표하는 기녀시인이다. 온완에 대한 기록은 明代 梅鼎祚가纂輯한 《靑泥蓮花記》(黃山書社, 1998)가 가장 자세한데, 이 책의 卷11 外編3 <記藻三·溫琬>에는 淸虛子가 편찬한 온완의 전기인 <甘棠遺事>, 蔡子醇이 지은 <甘棠遺事後序>, 그리고 온완의 시 30수가 수록되어 있다. “琬에게는 詩가 거의 500편이 있어서 스스로 하나의 시집을 엮었으

* 본 논문은 2010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한 것임.

** 대구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1) 《중국어문학》 제55집, 2010.06.

나 好事者が 흠쳐갔고, 후에 계속해서 100수를 읊었다”²⁾고 하였지만 지금 남아 전하는 시는 30수뿐이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대상은 이 30수의 시가 될 것이며, 기타 관련 문헌들도 이 시들을 분석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온완 시의 대략적 면모를 파악하는 것이 논지의 전개에 유용할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 30수의 시를 내용과 시형에 따라 분류해보고자 하는데, 온완 시의 내용을 개괄적으로나마 언급한 문헌은 蘇者聰의 《宋代女性文學》이다. 이 책에서는 온완 시의 내용을 抒懷感賦, 遊覽遣興, 寫景詠物, 送別餞行, 酬唱贈答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³⁾.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시가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시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內 容	題 目
抒懷感賦	<寄遠><寄情><述懷><述懷寄人><初冬有寄><探春有憶><偶題><大寒偶成><雁字><書懷>
遊覽遣興	<泛舟><題華山>
寫景詠物	<詠蓮><詠荷><尋扇><竹雪><雪夜觀月><詠菊二首><芍藥二首><詠落花><對月獻書>
送別餞行	<席上賦太守流杯><餞王彥輔><送監酒呂延平>
酬唱贈答	<和雪景值初冬喜雪><和劉景初園亭><香篆><舞研鼓曲>

이상의 표를 보면 “寫景詠物”류가 11수로 가장 많은데, 그 경물은 대부분 현실 생활이나 자연계 속의 작고 연약하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것들로서, “景物”의 “寫詠”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기탁하고 있는 작품이 많다.

2) 淸虛子, <甘棠遺事>(《青泥蓮花記》 252쪽): “琬有詩僅五百篇, 自編爲一集, 好事者竊去, 後繼竊吟百首.”

3) 《宋代女性文學》(武漢大學出版社, 1977) 230쪽.

10수의 “攄懷感賦”류는 대부분 애정시인데, 사랑하는 임 王生에 대한 그리움이나 두 사람의 추억 등이 중심을 이룬다. 그 외 “遊覽遣興”, “送別餞行”, “酬唱贈答” 등은 모두 합해 9수인데, 이 시들은 대부분 손님들과 유람하거나 연회할 때 태수의 명에 의해 지은 것이거나 송별시 혹은 증답시로서, 기녀 역할에 따른 창작으로 보인다.

온완의 시를 다시 시형으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詩 形	題 目
五言律詩	<述懷寄人><探春有憶>
五言絶句	<初冬有寄><偶題><大寒偶成><書懷><詠蓮><詠荷><詠落花><題華山>
七言律詩	<雪夜觀月><和雪景值初冬喜雪><和劉景初園亭>
七言絶句	<寄遠><寄情><述懷><雁字><尋扇><竹雪><詠菊其一><詠菊其二><芍藥其一><芍藥其二><對月獻書><泛舟><席上賦太守流杯><餞王彥輔><送監酒呂延平><香篆><舞研鼓曲>

온완의 시는 칠언절구가 17수로 가장 많고, 오언절구가 7수로 그 다음을 차지한다. 율시는 오언과 칠언을 합해 5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절구시가 24수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그 중에서도 칠언절구가 절구시의 70%, 전체 시의 57%에 육박한다. 그나마 칠언율시 <和雪景值初冬喜雪>과 <和劉景初園亭>은 和詩로서 和韻한 것이니, 이 두 수를 제외하면 절구시가 전체의 85%를 넘는다.

이상을 개괄하면 일단 온완은 많지 않은 작품을 남기고 있지만 시의 내용이 비교적 다채롭고, 형식적으로는 절구시, 그 가운데서도 칠언절구를 즐겨 지은 기녀시인이라 할 것이다.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송대 기녀 문인으로서 송대를 대표하는 가창양식인 사 작품을 하나도 남기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송대 기녀의 역할과 당시 문단의 상황으로 보자면 특이한 창작 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니, 온완 시를 분석하면서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II. 유가 학문과 선비적 인격

앞서 언급한 필자의 기 연구에서 보듯이 온완은 이모부의 보살핌 하에서 어릴 적부터 유가의 경전을 공부한 학자적 환경에서 자랐다. 이러한 환경은 그녀 시의 내용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어 다른 기녀 시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게 만들었다.

온완은 여섯 살부터 詩書를 읽어왔지만 作詩는 비교적 늦었으니, 官妓가 된 후 태수의 권고에 의해서 배우게 되었다.

처음에 완은 吟詩를 배우지 않았는데, 태수 張靖이 일찍이 그녀에게 “歌詩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니, 따라서 군자들은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너는 이미 독서를 했는데 시를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이름을 남기겠는가?”라고 했다. 완은 물러나 시를 엮었는데, 유독 李, 杜를 좋아했다. 처음에 절구를 배웠는데, 이미 문채가 있고 倫理를 이루었으니, 일찍이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삼은 적이 없었다. 다른 날에 태수를 뵈고 말하기를, “제가 이미 시를 배웠습니다.”라고 했고, 태수가 詩題를 주자 붓을 잡고 완성했는데, 그 민첩하면서도 넉넉함을 매우 좋아했다. 이로 말미암아 간혹 자리에서 贈答한 것이 있게 되었는데, 警句가 많았다. 關中에서 淮甸⁴⁾에 이르기까지 사람마다 다투어 전송하니, 이에 또 시로써 이름이 더욱 빛났다.⁵⁾

이 기록을 통해 보면 온완은 이백과 두보 시를 좋아했고, 絶句부터 짓기 시작했으며, 독학으로 시를 익혀 關中에서 淮甸까지 “人人爭傳誦”할

4) 關中은 陝西 渭河 유역 일대를 말하고, 淮甸은 淮河 유역을 말한다.

5) 淸虛子, <甘棠遺事>(《靑泥蓮花記》 249쪽): “始琬不學吟詩, 太守張公靖嘗謂之曰, ‘歌詩, 人之所難, 故君子莫不有作. 爾既讀書, 不學詩, 何以留名?’ 琬退而編詩, 獨喜李·杜. 始學絶句, 已有文彩·成倫理, 未嘗師人也. 他日見太守, 曰, ‘琬已學詩矣.’ 太守命題, 執筆而成, 深慕其敏且贍. 由是間或席上有所贈答, 多警句. 關中以至淮甸, 人人爭傳誦, 于是又以詩, 名愈盛.”

정도로 시명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온완이 늦게 시를 배웠지만 금방 “有文彩·成倫理”의 형식과 내용을 겸비한 수준 있는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詩書에 심취하여, 그 맛을 깊이 알았으니 밤낮으로 默誦을 그친 적이 없었다”⁶⁾는 어릴 때부터의 흥미와 공부 덕분이라 할 것이다. 온완은 “辭理優當”한 《孟子解義》八卷을 비롯하여 “九經, 十二史, 諸子百家, 兩漢 이래의 文章, 議論, 天文, 兵法, 陰陽釋道의 요체 등 갖추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고금의 성패”까지 종합한 《南軒雜錄》을 지은 학자로서, “그 해박함이 博學한 선비들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평을 받았으며⁷⁾, 당대의 대학자이자 재상이었던 司馬光도 감탄했을 정도였다. 이는 모두 어릴 때부터 쌓아온 유가 학문의 독서경력 때문이다. 그녀는 여섯 살 때 “詩書를 가르치면 새벽이 되어도 자지 않았다”⁸⁾고 했고, 기녀가 된 후에도 “惟喜讀書” 하여 《孟子》는 물론이고 揚雄이나 《文選》, 여러 역사 전적과 名賢의 문장 등을 두루 읽었으며, 관사에서 도망쳤다 다시 붙잡혀 온 뒤에도 “手不釋卷” 했으니, 이러한 학문적 배경이 그녀 시의 내용과 풍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온완의 시는 일반 기녀시인의 시에서 찾기 힘든 선비적 풍격이 드러나는데, <雪夜觀月>⁹⁾은 학문에 심취한 선비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

天寒雪月相輝映,	차가운 하늘에 눈과 달이 서로 비추어 빛나니
此夕家家盡玉妝.	오늘 저녁은 집집마다 옥 화장을 했다네.
梅老不收千里艷,	매실이 익어도 수확하지 않아서 천리를 곱게 만들고
桂新推出一輪香.	계화가 새롭게 밀고 나와 두루 향기를 뿜는다.

6) 앞의 글(《靑泥蓮花記》 247쪽): “心醉詩書, 深知其趣, 至于日夜默誦未嘗已.”

7) 앞의 글(《靑泥蓮花記》 252쪽): “《孟子解義》八卷, 辭理優當, ……嘗爲一秩, 目其上曰《南軒雜錄》, 其間九經, 十二史, 諸子百家, 自兩漢以來文章, 議論, 天文, 兵法, 陰陽釋道之要, 莫不畢備, 以至于往古當世成敗, 皆編次第之. 常日披閱, 該博遠過博學之士.”

8) 앞의 글(《靑泥蓮花記》 247쪽): “訓以詩書, 則達旦不寐.”

9) 《靑泥蓮花記》 258쪽. 이하 본고에서 인용하는 시는 같은 책 254-260쪽에 있는 것으로 각주를 생략함.

詩心挨曉吟晴景, 시심은 새벽이 가까워 오면서 맑게 갠 정경을 노래하고
木凍搖風拂冷光. 언 나무에 바람이 불면서 차가운 빛을 떨친다.
天上人間都作白, 천상과 인간 세상 모두 하얗게 만들었으니
餘輝思借讀書堂. 나머지 빛은 독서당으로 빌려갈 생각이로다.

청아하고 맑은 정경 속에서 시를 짓고 책을 읽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더욱이 눈과 달의 빛을 독서당으로 빌려가서 책을 읽겠다고 표현하고 있으니, 이것은 눈과 달을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묘사하는 여느 시인과 다른 점이다. 특히 이러한 풍격은 기녀의 시라는 점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데, 마치 송대 理學을 신봉하는 전형적 유가의 모습이 연상된다. 실제 온완은 “道義의 말이 아니거나 悠久한 말이 아니면 일찍이 그 입에서 꺼내지 않았다”¹⁰⁾고 하였으며, 또 그녀의 글씨를 얻으려는 사람에게 “德을 이루는 것이 상이고, 藝를 이루는 것은 하이니, 완은 이것에서 이름 얻기를 원하지 않나이다.”¹¹⁾라고 했으니, 유가의 철학과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 선비라고 할 것이다. 특히 온완이 가장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孟子》는 유가 사상의 집합체로서, 온완의 사상과 인격의 형성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다. 실제로 여자로서, 더구나 기녀의 신분으로 이처럼 유가의 최고 경전에 정통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니, 따라서 《玉鏡陽秋》에서도 “女子가 詞章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義理를 연구하는 사람은 적으니, ……琬은 風塵의 여자로서, 孟氏書에 능통하여 그것에 訓故를 했으니, 생각해보면 위대하지 않은가!”¹²⁾라고 했던 것이다.

온완을 이처럼 유가적 인격을 가진 선비로 느끼게 만드는 것은 유가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모친에 대한 효심을 통해 충분히 확일 수 있다. 온

10) 蔡子醇, <甘棠遺事後序>(《青泥蓮花記》 253-254쪽): “非道義之言, 非悠久之語, 曾不出諸其口.”

11) 清虛子, <甘棠遺事>(《青泥蓮花記》 252-253쪽): “然或人求其所書, 則拒, 應曰, ‘德成而上, 藝成而下. 琬于此, 不願得名也.’”

12) 《玉鏡陽秋》: “女子攻詞章者多, 研義理者寡, ……琬以風塵, 乃能通孟氏書, 爲之訓故, 願不偉哉!”

완의 생모는 온완을 어렵게 만드는 화근이자 평생의 짐이었다. 온완의 생모는 여러 번 생모답지 않은 처신을 했는데, “良家女”였던 온완을 이모 집에 맡기고 자신은 관기로 들어간 것이 생모답지 못한 첫 번째 처사였다. 갓난아기 때 생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어머니가 기녀가 되었기 때문에 온완도 기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 이모 집에서 사랑을 받으며 잘 성장했고 열네 살이 되어 양가와의 혼인을 눈앞에 둔 시점에 어머니가 온완을 데리러 오면서 어머니답지 못한 두 번째 처신을 한다.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으려 하자 관가에까지 알려져 결국 딸의 혼사를 막았던 것이다. 그녀는 당시 어머니의 생각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체 하였다.

처음에 돌아가지 않으려 하자 또 관에 알렸고, 이에 그 혼인이 깨어졌다. 완은 이 때 모친의 계락을 속으로 알고 있었으나 침묵하며 혼자 말하길 “나는 어려서부터 독서를 배워서 오늘 날 조금 도리를 알게 되었는데, ……박명하여 짝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 지경이 되었구나.”라며 울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다.¹³⁾

그래서 모친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모친을 따라서 감당의 관사에 함께 기거하게 되었다. 그 후 모친은 온완을 기녀로 만들기 위해 또 생모답지 않은 세 번째 처신을 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에게 뇌물을 주어 완과 합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 사정을 알고 보니 피할 수가 없었다. 잠시 전 날의 생각을 하였고, 이때부터 창기가 되었다.”고 했다. 여기서 전 날의 생각이라는 것은 부모의 은혜가 막중하다는 것으로, 역시 모친을 거스르지 않고 기녀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네 번째는 관부에서 한 상인에게 빠져 세 달이나 만취하여 온완까지 곤란하게 만든 사건이다. 온완은 결국 어머니와 그 어머니가 물려준 기녀 신분으로부터 탈출을 감행했고, 일이 발각되어 다시 불려온 후에는 또 어머니를 용서하고 받아

13) 淸虛子, <甘棠遺事>(《靑泥蓮花記》 247쪽): “初不歸之, 復訟于官, 乃寢其婚. 琬是時陰識母氏之謀, 因默自言曰, ‘琬少學讀書, 今日粗識道理, ……薄命不偶, 一至于此.’ 因泣下, 悲不自勝.”

들었다. 이처럼 온완의 어머니는 온완에게 오히려 화근이자 짐이었다. 그러나 온완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또 항상 말하길, “사람이 금수와 다른 까닭은 그 예의를 알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傳》에 이르길, ‘만물은 하늘에 근본을 두고 사람은 조상에 근본을 둔다’고 했으며, 《詩》에 이르길, ‘아아! 부모께서 나를 낳고 힘들게 키우셨도다.’, ‘보답해야 할 덕이 그지없구나.’라고 했습니다. 곧 은혜의 무거움이 부모를 넘는 것이 없음을 글마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열두 달 만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일 년 만에 불행하게도 아버지께서 천수를 마쳐버렸습니다. 나에게서는 오빠도 없고 모친도 의지할 데를 잃어버렸습니다. 먹는 것도 주린 배를 채우기에 부족하고 입는 것도 차가운 몸을 데우기에 부족하였습니다. 또 남에게 밀린 돈도 거의 30만이나 됩니다. 만약 이렇게라도 저를 키워주지 않았다면 도랑이나 골짜기에 널부러져 죽은 지 한참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부녀자들처럼 단지 내 몸 하나만 살아갈 방도를 찾는다면 모친은 장차 누구에게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하면 어찌 인정만을 거스르는 것이겠습니까? 천지의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곁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제가 또 어찌 혼자만 살 궁리를 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이르길, “나는 일개 여자로서, 위로는 이미 功業을 이룰 수도 없고, 아래로는 또 良家에서 키나 빗자루를 들고 살림이나 하면서 어머니를 먹여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일신의 榮辱을 돌보아 노모를 굶주려 죽을 곳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다면 제가 감개하여 자살한다 해도 또한 능히 용기 있는 자는 못되니, 다시 무슨 면목으로 지하의 선조를 뵈 수 있겠습니까?”라며 누차 눈물을 흘리더니 머뭇거리며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¹⁴⁾

14) 앞의 글(《靑泥蓮花記》 247-248쪽): “又常曰, ‘人之所以異于禽獸者, 以其識禮義, 知其所自先也. 《傳》曰, ‘萬物本乎天, 人本乎祖.’ 《詩》曰, ‘哀哀父母, 生我劬勞’, ‘欲報之德, 昊天罔極’. 則恩之重, 無過父母, 章章明矣. 琬之生, 凡十有二月而誕. 既誕逾年, 不幸父以天年終, 而琬無長兄, 致母氏失所依倚, 食且不足飽腹之饑, 衣且不足暖體之寒, 又所逋于人者幾三十萬. 苟不圖以養, 轉死溝壑有日矣. 琬若婦人, 直自謀之善耳, 親將誰托哉? 豈獨悖逆于人情, 天地鬼神, 臨之在上, 質之在傍, 琬又安自存乎? 此圖以償之.’ 則又曰, “琬一女子也, 上既不能成功業, 下又不能奉箕帚于良家, 以活其親. 而復眷顧名之榮辱爲念, 使老母竟

이처럼 온완에게 짐이 되는 어머니였지만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서 결국 기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러한 어버이에 대한 지극한 효심은 그녀가 해온 유가적 학문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녀로서의 삶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학문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다. 온완은 양가와 결혼하여 원만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꿔왔는데, 기녀로서의 삶은 이러한 꿈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천성적으로도 유희도 좋아하지 않았고, 음악도 즐기지 않았으니¹⁵⁾, 기녀 생활의 갖가지 모습들을 견디기 힘들었다.

완은 여러 기녀들이 고운 옷에다 꾸미고 화장하고서 저자거리 가게 안에서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침저녁으로 나가면 문에 기대어 있는데 모두 기다리는 것이 있었다. 만나서 들어오면 팔을 끼고 무릎을 들이대며 음탕하고 외설스러운 말로써 서로 자랑하였다. 스스로 가만히 따져 보더니 “아! 내가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이 부류에 들어가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다”라고 탄식하며 스스로를 보호하여 피할 수 없음을 한스럽게 생각했다.¹⁶⁾

온완은 모친과 함께 기거하면서 기녀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매우 혐오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금방 그 무리 속에 섞여 버릴 것이라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것이다. 온완은 기녀가 된 후에도 기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직 독서로 위안을 삼으며 힘든 생활을 버텨나갔다. 그러다가 모친의 방탕한 생활이 겹치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관사에서 도망쳤다. 후에 발각되어 다시 甘棠邑으로 소환되었고 태수의 선처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 후에도 기녀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 누차 태수에

至於饑餓無死所，則琬雖感慨自殺，亦非能勇者也，復何面目見先祖于地下邪？屢至灑涕，猶豫終不能決。”

15) 앞의 글(《靑泥蓮花記》 247·248쪽): 少不好嬉戲，……性不樂笙竿.

16) 앞의 글(《靑泥蓮花記》 247쪽): “琬見群妓麗服靚妝，以市廛內爲荒穢之態，旦暮出則倚門，皆有所待. 邂逅而入，則交臂促膝，淫言嫖語，以相夸尙. 竊自爲計曰，‘吁，吾苟不能自持，入此流不頃刻耳.’ 嗟念恨不能自翼以避之.”

게 脫籍을 간청했다. 이것은 모두 자신이 공부해왔던 유가의 이상과 자신이 처한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의 <述懷>는 기녀 생활에 대한 염증과 학자적 의식을 엿볼 수 있다.

多情天賦反傷情, 친부적인 다정함 때문에 오히려 마음 상하고
深閉幽窓倦送迎. 어둔 창에 깊이 갇혀 보내고 맞는 일이 권태롭다오.
莫笑區區事章句, 章句(훈고독서)를 일삼는다고 구구하다 비웃지 마소.
不甘道蘊擅詩名. 謝道韞¹⁷⁾처럼 詩名 날리는 것은 달갑지 않소.

첫째 구와 둘째 구는 기녀 생활에서 받은 상처와 염증을 묘사한 것이고, 셋째 구와 넷째 구는 그러한 기녀 생활 중에서도 묵묵히 “事章句”하는 학자적, 선비적 면모를 보여다.

태수는 온완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지만 자기 곁을 떠나겠다는 그 청은 들어주지 않았다. 어느 날 태수가 “香篆”으로 부시를 명하자 온완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一縷祥煙綺席浮, 한 줄기 상스러운 안개가 비단 자리 위에 떠 있고
瑞香濃膩繞賢侯. 상스러운 향기 농염한데 현후를 에워싸고 있네.
還同薄命增惆悵, 또 박명한테다 슬픔까지 더해지고
萬轉千回不自由. 이리저리 계속 돌며 헤어지지 않는구나.¹⁸⁾

“香篆”은 篆文처럼 구불구불한 향 또는 그 향을 피울 때 나는 연기를 일컫는다. 내용적으로는 금방 타서 없어져버리는 향의 ‘박명’과 구불구불

17) 謝道韞(349~409)으로서, 東晉 후기의 名將 謝安의 侄女이자, 安西將軍 謝奕의 딸인데, 후에 또 王羲之의 둘째 아들 王凝之에게 시집갔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詩文에 뛰어나 명성을 날렸는데, 劉孝標 注 《世說新語·言語》에는 《婦人集》을 인용하여 “謝道韞有文才, 所著詩、賦、誄、訟, 傳于世”라고 했다. 그녀는 또 書法에도 뛰어나 칭송을 받았으니, 문학 예술적 재능으로 보면 온완과 비슷하다 하겠다.

18) 이 <香篆>詩는 <甘棠遺事>(《靑泥蓮花記》 250쪽) 본문에 인용되어 있다.

피어오르며 멀리 뻗어가지 못하고 賢侯 주위만 맴도는 향의 ‘부자유’한 성질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향이 현후 주위를 맴돌 듯 태수의 소환에 응해야 하는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은유하고 있으니, “향진”의 박명과 부자유는 바로 자신의 박명과 부자유이다. 그 비유가 매우 절묘하니, 鍾惺도 이 시를 “香篆을 읊으면서도 오히려 이 두 구를 두었으니, 감정이 입에 뛰어나고 조탁한 흔적 역시 정미하고 환상적이다.”¹⁹⁾라고 평했다. 태수는 이 시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끝내 탈적을 허락하지 않았고, 임기가 끝나 이임할 때에야 비로소 풀어주었다.²⁰⁾ 온완은 모친과 함께 京師(지금의 開封)로 이사 갔으니, 아마도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새로운 곳에서 꿈꾸던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경사에서는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후에 왕생을 만나 良家女로서 가정을 꾸리고자 하였는데, 이 역시 유가적 이상의 완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청허자의 “都下의 名唱 가운데 色으로써 이름난 자는 많으나 德으로써 이름난 자는 드물다. 내 들건대 琬이 선비 군자들에게 함께 일궈진 지 오래되었고, 나는 그 얼굴을 알고 싶은 생각이 매우 간절했다. 그녀를 한번 만나보니 그 거동이 禮度가 있고 그 언어는 詩書와 합치되어 나는 자못 탄식했다.”²¹⁾라는 말은 온완의 이러한 선비적 풍모를 잘 대변한다. 이

19) 《名媛詩歸》 卷21: “賦香篆, 却有此二句, 善能入情, 着迹亦微幻.”

20) 이 시외에도 온완이 기녀 생활을 하면서 명에 의해 지은 것으로 보이는 시는 네 수가 더 있다. <席上賦太守流杯>는 曲水流觴의 정경을 묘사하면서 태수의 벼슬길을 축원한 시이며, <錢王彥輔>와 <送監酒呂延平>는 송별시로서, 전자는 왕언보가 右曹官을 맡은 공적을 칭찬하고 아울러 미리 미래의 고관후록을 축원하고 있으며, 후자는 여연평을 송별하며 지은 시이다. 또 <泛舟>와 <題華山>은 유람시로서, 전자는 뱃놀이, 후자는 화산 유람을 묘사한 것으로서 기녀 생활로서 손님들과 유람 가서 쓴 시로 보인다. 온완은 명사들이 다투어 교류하기를 원하던 명기였으므로 당연히 증답시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和詩 두 수만 남아있으니, <和雪景值初冬喜雪>는 雪에 대한 것이고, <和劉景初園亭>는 園林에 대한 것이다.

21) 淸虛子, <甘棠遺事·序>(《靑泥蓮花記》 246쪽): “都下名唱, 以色稱者多矣, 以德稱者鮮焉. 余聞琬爲士君子共稱道久矣. 余思識其面甚切, 及一見之, 其舉動則有禮度, 其言語則合詩書, 余頗歎息之.”

처럼 유가적 도덕을 바탕으로 한 선비적 풍격은 그녀의 시의 바탕을 이루어 그녀의 시를 자존감과 고상함이 느껴지도록 만들었다. 거기에다 유가적 이상에 따른 원만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소망은 그녀를 사랑에 눈뜨게 하면서 또 어느 여성시인 못지않은 섬세하고 완곡하며 정감 있는 애정시를 짓게 만들었다. 아래에서 이 두 상반되는 내용과 특징을 차례대로 살펴 보자.

Ⅲ. 자존감과 고상함

온완의 이러한 선비적 풍모는 비록 기녀 신분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따라서 교유하는 사람들도 주로 達官貴人이거나 명망 있는 선비들이었다. 이것은 기녀가 된 후에도 “내가 이미 이 무리들(기녀들)에 빠졌는데, 만약 사람을 가려서 놀지 않고 한갓 재주도 가볍고 의리도 없는 才子나 부유한 장사꾼 들을 좋아하여 이익에만 뜻을 둘 따름이라면 곧 俗奴와 어찌 다르리오! 비록 이 몸을 죽여도 치욕을 씻기에 부족할 것이다.”²²⁾라며 나름의 원칙과 자존감을 지키려 애썼기 때문이니, 그래서 張希言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절조와 염치가 있고, 스스로 娼妓로 대우하지 않았다. 교유나 연회할 때에 명성 있고 높은 사람들도 대부분 그녀를 예의 있게 대했는데, 비록 선비 군자라 해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없었다. ……또 더불어 사귀는 자도 모두 당세의 호준한 선비들이었다. 경박하고 망나니 같은 자제들에 이르러서는 모두 거센 바람의 기세에 초목이 쓰러지고 흩어지듯이 감히 결눈으로도 바라보지 못했다.²³⁾

22) 淸虛子, <甘棠遺事>(《靑泥蓮花記》 249쪽): “琬旣沈爲此輩, 苟不擇人而與之遊, 徒然輕才薄義才子·富商巨賈之倫, 志乎利而已, 則與俗奴奚別! 雖殺身不足以滅恥.”(《靑泥蓮花記》에 ‘輕才’는 원래 ‘輕財’로 되어 있으나 의미상 순통하지 않아서 필자의 임의로 고쳤음)

23) 앞의 글(《靑泥蓮花記》 251쪽): “有節操廉恥, 而不以娼自待. 而交遊宴會, 名

이러한 “節操廉恥”와 “스스로 娼妓로 대우하지 않는” 자존감이 기녀이지만 함부로 막 대할 수 없는 그녀의 품위를 만들었다. 才色으로써 천하에 명성을 날린 기녀들은 무수히 많지만 기녀 신분으로 여러 선비들의 존중과 흠모를 받는 것은 매우 드물다 할 것이다.

이러한 온완의 정신은 시에도 반영되어 있다. 온완은 영물시를 많이 지었는데, 그녀가 영물의 소재로 삼은 것들은 대부분 현실 생활이나 자연계 속의 작고 연약한 것들로서, 마치 자신을 닮은 것 같다. 그 가운데 특히 흰 눈을 덮어쓴 ‘竹雪’은 삶에 짓눌리지만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영롱한 온완 자신의 투영이다.

一簇修篁小檻中，	한 무더기 긴 대나무가 작은 울타리 속에 있는데
可堪和雪更玲瓏。	눈과 조화되어 더욱 영롱함을 어찌 견디리오.
數枝壓亞猶增秀，	몇몇 가지는 눈에 눌러 오히려 더욱 빼어남을 더하니
莫惜輕綃命畫工。	고운 비단 아까워 말고 화공에게 그리라고 명하노라.

(<竹雪>)

대나무는 전통적으로 절조를 상징하는데, 이 “竹雪”은 현실에 짓눌린 자신을 대표한다. 즉, 눈에 짓눌려도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가 더욱 빼어나게 보이듯이 현실의 힘든 시련을 이겨내고 절조를 지키는 자신도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의 표현인 것이다. 그래서 “사망의 기녀들도 일일이 모두 그 우열을 따지고 비교하여 그 가진 것을 살펴보고 그 절조를 관찰하였는데, 仲圭(온완)와 같은 자는 실로 있지 아니하였다.”²⁴⁾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기녀는 그 사회적 지위가 낮지만 才色에 따라 얼마든지 편안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온완은 이러한 편안한 생활을 좇지 않

碩多禮貌之，然雖士君子不能遠過。……又所與契者，盡當世豪俊之士。至於輕浮儂浪之狂子弟，皆望風披靡，而不敢側目以矚視。”

24) 앞의 글(《靑泥蓮花記》 251쪽): “四方之妓，一一皆審較其優劣，視其所得，察其所操，如仲圭者，實未之有焉。”

고 오직 어려서부터 익힌 유가의 이상을 추구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였다. 따라서 양가녀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간절히 원하였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녀 신분을 벗어나야 했으므로 기회만 있으면 탈적할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힘든 나날을 견뎌야 했다. 온완은 삶 자체가 험난했으니,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이모 집에서 자랐으며, 관기가 된 모친 때문에 원치 않는 기녀의 길을 걸어야 했다. 탈적 후에는 또 어렵게 만난 연인을 전장에서 잃었으며, 외롭게 노모를 모시면서 평생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시에는 이러한 삶의 상처들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불굴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으니, 이러한 정신이 그녀 시의 큰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落花’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費盡東君力, 동군(봄)이 힘을 다 써버렸으니
無情一夜風. 무정한 한 밤의 바람.
鶯聲莫相別, 피꼬리 소리는 서로 이별하지 말라고 하지만
秀實任春工. 빼어난 열매는 봄에 맡겨 만들어지거늘.(〈詠落花〉)

꽃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낙화는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데 대한 슬픔이 일반적인 기조이다. 특히 기녀의 운명은 금방 저버리는 꽃과 같아서 외모의 아름다움이 가시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 기녀문인의 필하에서 꽃은, 더욱이 떨어지는 꽃, 낙화는 기녀의 슬픈 운명을 대변한다. 그러나 온완은 낙화를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秀實”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시작이자 희망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온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은 절조를 지녔고, 그 어려움을 희망으로 바꾸는 긍정적 정신과 강한 의지를 겸비한 자존감 강한 기녀시인인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기녀 시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고상함과 고결함이 깃든 시를 짓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기질은 특히 국화를 통하여 자신을 暗喩하고 있는 <詠菊二首>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碧玉枝能輝砌欄, 벽옥 같은 가지가 섬돌과 난간을 빛나게 하고
 黃金蕊可薦杯盤, 황금 같은 꽃술은 술잔과 소반으로 추천할 만하다.
 陶潛素有東籬興, 도잠에게 본래 동쪽 울타리의 감흥이 있으니
 莫與群芳一樣看, 못 꽃들과 같이 보지 말지니.

簇金雕玉鬪玲瓏, 금을 모아 놓은 듯 옥을 조각한 듯 영롱함을 다투며
 心有清香分外濃, 중심에는 맑은 향기가 있는데 특히 짙다.
 蜂蝶盡從嫌冷淡, 벌과 나비는 모두 냉담함을 싫어하지만
 陶潛不肯愛芙蓉, 도잠도 부용을 사랑하려 하지 않았다네.

첫째 수에서 온완은 “莫與群芳一樣看”이라고 하여 자신을 못 기녀들과 동일시하지 말라며 자존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화가 보통 사람들은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꽃이지만 도연명처럼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듯이 자신이 기녀이지만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자존감이다. 국화의 “碧玉枝”와 “黃金蕊”는 “簇金雕玉”처럼 “玲瓏”하지만 그 진짜 가치는 “心有清香”이듯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기녀라는 신분을 넘어서는 유가적 학문을 바탕으로 한 인격이다. 그래서 “蜂蝶”이 “冷淡”한 국화를 싫어하듯이 일반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지만 도연명도 화려한 “芙蓉”을 좋아하지 않았듯이 이것은 개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온완은 한편으로는 못 꽃들과는 다른 “清香”의 국화를 빗대 자신이 일반 기녀와는 다르다는 자존감을 드러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연명처럼 ‘塵世’로부터 벗어난 은거의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도연명의 “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이라는名句가 출현한 후부터 국화는 줄곧 高士나 隱者를 대표하는 꽃으로서, 고결하고 超俗의인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국화는 깊은 가을 온갖 꽃이 떨어질 때 무성하게 피어나 흑한을 두려워 않고 구차히 時俗을 쫓지도 않는다. 설사 벌과 나비가 오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독특한 “清香”을 방출하여 자신의 아름다운 바탕을 드러내므로 고매한 선비 도연명도 특히 국화를 사랑했던 것이다. 온완의 국화에 대한 찬미는 바로 일종의 고상한 질조와 품덕에 대한 추구를 표현한 것이다.

국화가 도연명의 태도와 정신을 상징한다면 芍藥은 온완을 닮았다. <芍藥二首>를 보자.

桃李開時英未吐,	桃李가 필 때에는 꽃 봉우리가 아직 나오지 않고
輪蹄方乏始花攢.	수레바퀴와 말발굽이 드물어지면 비로소 꽃이 모이네.
嘉名一種清香在,	아름다운 명성에다 한번 심으면 맑은 향이 있으니
未肯將心愧牡丹.	아직 마음으로는 모란에게 부끄럽지 않다.

首夏群芳色正殘,	초여름 뭇 꽃들은 색이 막 바래지는데
玲瓏千葉照杯盤.	영롱한 여러 이파리들이 술잔과 소반을 비춘다.
主公好事偏相惜,	主公은 일을 좋아하여 특히 편애하나니
怕損纖枝創曲欄.	고운 가지가 손상될까봐 굽은 난간을 만든다.

芍藥은 시절을 따르지 않고 桃李를 좇지 않으니 뭇 꽃들이 시들 때인 初夏에 무성하게 핀다. 그것은 모란처럼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진 못하지만 스스로 “清香”이 있으므로 모란에 손색이 없다고 느낀다. 이처럼 온완은 작약의 독특함과 비범함을 묘사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다 “清香”을 강조하여 국화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은유한 것이다. 특히 둘째 수의 셋째와 넷째 구는 태수(主公)가 “纖枝”(자신)가 상할까봐 “曲欄”을 만든다고 하여 자신을 특히 아끼고 있음을 은근히 과시한 것으로, 온완의 자존감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처럼 온완은 국화를 통한 도연명의 전원 은거나 뭇 꽃들과 다른 작약을 통해 그 자존감과 고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온완의 이러한 태도는 동시대 은자나 고사들에 대한 찬탄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그들의 삶과 정신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녀의 <和劉景初園亭>이 그 대표적 예이다.

養恬高士厭塵籠, 養恬²⁵⁾한 高士는 새장 같은 세속을 싫어하는데

25) 恬靜寡欲의 사상을 배양함. 또는 恬靜한 생활을 함. 《莊子·繕性》의 “古之治道者以恬養知, 知生而無以知爲也, 謂之以知養恬.” 참고.

一簇林亭氣郁叢.	한 무더기 숲과 정자에 기운이 가득 모여 있구나,
紀日管弦皆雅麗,	紀日(간지기일)이 되자 관현은 모두 아려하고
滿城車馬盡交通.	성 가득 車馬가 온통 이리저리 다니는 구나
小舟輕泛泉飛碧,	작은 배 가볍게 띄우니 푸른 물 위에서 날듯이 가고
秀木橫空葉墮紅.	하늘을 가로지른 아름다운 나무는 붉은 잎을 떨어뜨린다.
聞說留題詩版處,	듣건대 留題詩 ²⁶⁾ 명부가 있다고 하는데
愧將狂斐廁名公.	부끄럽게도 狂斐 ²⁷⁾ 한 이 몸이 명공에 섞여 있음이.

유경초는 園林을 짓고 은거하고 있는 厭世의 高士로서, 그 원림에는 정자가 있고 수목이 울창하며 푸른 물이 넘실거린다. 그는 음악을 들으며 호수에 배를 띄우고 여유롭게 노니는데, 하늘을 가로지른 “秀木”에서 붉은 잎이 떨어지며 아름다운 늦가을 경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장면은 <詠菊二首>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온완이 추구하는 이상적 생활로서, 그에 대한 부러움이 배여 있다. 끝 두 구는 겸손의 말로서, 자신의 뜻은 높지만 재주가 모자라서 名公과 和詩하여 시작을 남기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인데, 사실은 자신도 이러한 “養恬高士”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또는 듣고 싶다는 자신감과 희망의 표현이다. 즉, 온완은 隱逸高士 유경초를 통하여 자신의 이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IV. 지순한 애정

온완의 시가 이처럼 모두 유가 학문을 바탕으로 한 선비풍의 자존감과 고상함이 깃든 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온완은 경사로 이사 와서 탈적한 후 짧은 기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이 시기에 지어진 시는 온완의 지순한 애정이 드러나 있는 전형적인 애정시로서, 온완 시의 또 다른 내용과 특징

26) 명승지를 유람하며 그 느낌을 써 놓은 시구.

27) 自謙의 말로서, 宋 范仲淹의 <上執政書>에도 “狂斐之人, 誅赦惟命.”라는 말이 있다.

을 보여준다.

온완의 애정에 관해서는 <감당유사>에도 거의 언급이 없다. 단지 열네 살에 張家와 혼인하려 했으나 과혼 당했고, 京師에 와서 太原의 王生을 만나 사귀었다는 기록이 있다.

몇 년 기거하고는 후에 시집가고자 하였는데 청한 바를 이룰 수 있었다. 처음에 태원의 왕생과 오래 지냈다. 을묘 중에 생은 交趾(지금의 베트남 지역)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어버렸다. 완이 그 소식을 듣고 깊이 통곡하였다. 또 그 부도를 만들어서 여러 날 동안 송경하며 극락왕생을 빌었는데 사람들이 그 은의를 갖추고 있음을 매우 흠모하였다.²⁸⁾

이 기록만으로 태원의 왕생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 길이 없다. 다만 경사에서 몇 년 산 후 왕생을 만나 사귀었고, 그 왕생이 전쟁터에서 죽었으며, 죽은 다음에는 그의 장례까지 치러주며 명복을 빌었다는 것이 기록의 전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온완은 어릴 때부터 유가의 학문을 쌓아온 학자로서, 그녀의 입장에서는 良家女처럼 결혼을 하여 완전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평생의 마지막 꿈이었다. 그녀는 긍정적 정신과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경사로 이사 와서 妓籍을 벗어난 후에는 그 꿈을 이룰 시도를 했던 것이니, 그래서 “後求去”라고 한 것이다. 왕생을 만나 그녀의 꿈은 실현되는 듯 했으나 역시 결혼을 앞두고 그 왕생이 또 전쟁터에서 죽어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왕생이 죽은 후에도 끝까지 아내의 예를 갖추어 추도하고 절조를 지켜 또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것이다.²⁹⁾

28) 淸虛子, <甘棠遺事>(《靑泥蓮花記》 251쪽): “居數年, 後求去, 得遂所請. 始, 與太原王生有舊. 乙卯中, 生戰交趾, 沒于兵間. 琬聞之, 至深慟哭. 又召舉浮屠者, 誦經累日以薦生, 人欽其能全恩義.”

29) 陳曉藝는 <命蹇情殤詩愈工—論薛濤和溫琬>에서 당시는 마침 二程의 性理說이 크게 유행하고 아울러 神宗의 賞識 을 얻은 때로서, 송대 여성들은 程頤가 줄곧 강조한 이른바 ‘陰必從陽, 女必從男, 男在女上, 男尊女卑, 倫理之常’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唐代 기녀와 달리 “宋代 妓女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윤리도덕과 명분이었고, 추구하려고 했던 것은 빨리 樂籍을 벗어나 정식

온완의 시를 보면 그녀가 끝까지 아내의 예를 다하며 절조를 보여준 이유를 짐작할 수 있으니, 어렵게 찾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온완의 일생을 보면 외로움과 한이 쌓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음의 <大寒偶成>은 온완이 관기 생활을 할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외로움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公關呵纖手, 관부 누각에서 고운 손을 호호 불며
濡毫結凍澌. 붓을 적시니 성애가 얼어 맺힌다.
發妝唯有酒³⁰⁾, 술을 마신듯 붉게 화장하지만
誰爲暖輕肌? 누가 고운 피부를 따뜻하게 해줄런가?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 화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으로, “發妝”의 이유가 되는 “暖輕肌”해 줄 사람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떠난 입은 소식조차 없다.

飛來絕漢三千里, 아득히 먼 은하수 길 삼천리를 날아와서
寫破晴空三四行. 맑게 갠 하늘에 서 너 줄 글자 써놓았노라.

으로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완미한 결국이었다. 의심할 바 없이 온완과 같은 기녀는 隋, 唐, 五代 시기에는 출현할 수 없으니, 그녀는 단지 理學이 처음 영향을 갖게 된 北宋 중엽 이후의 산물로서, 程朱 理學思想의 영향을 받아서 악적을 벗어난 후에 왕생을 사랑하게 되고 아울러 그를 결혼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왕생이 사막의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비보가 왔을 때도 의연하게 아내의 자격으로 그를 위해 후사를 처리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程顥(1032~1085)와 程頤(1033~1107)는 온완이 경사에 머물던 宋 神宗 때 가서야 자신의 理學體系를 세웠고, 그 이론이 본격적으로 유행하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은 남송의 朱熹가 소위 성리학의 체제를 완비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진효예의 이러한 주장은 송대 사회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따른 추론일 뿐 근거가 희박하다 할 것이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유가 학문을 공부한 온완의 선비적 기질에 기인한 것으로서, 다른 기녀문인과 구별되는 온완 문학의 특징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30) 柳永 《少年游·四》의 “.....香幃睡起, 發妝酒醺, 紅臉杏花春.”와 같은 용례로, 뺨에 연지를 질게 바르는 화장을 또 “酒暈妝”이라고 한다.

點畫不精誰入畫, 획이 정교하지 않으니 누가 바르게 그어 넣을까?
 應難染指獻公堂. 내 染指書³¹처럼 공당(官府)에 바치기는 어려우리.
 (<雁字>)

이 시는 표면적으로는 맑은 하늘을 나는 기러기 떼를 읊은 것이지만 “雁字” 자체가 “魚書”와 함께 소식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은근히 임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소식 한 장 없는 임 때문에 연꽃 속에 잠든 한 쌍의 원앙은 온완의 외로움을 더욱 극명하게 만든다.

魚戲銀塘闊, 물고기는 넓은 은빛 연못에서 노닐고
 龜巢翠蓋圓. 거북이는 둥글고 푸른 연잎 덮개에 등지를 트는가.
 鴛鴦徧受賜, 원앙은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다가
 深處作雙眠. 깊은 곳에서 나란히 잠이 든다.<詠荷>

봄이 되어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에 연꽃 밭 속에 나란히 잠든 한 쌍의 원앙은 온완이 꿈꾸는 사랑의 이상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을 이루지 못한 온완은 이 장면에서 그 외로움과 한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郎在溪西妾岸東, 그대는 시내 서편에 첩은 독 동쪽에 있으니
 雙眸寄恨托溪風. 두 눈동자로 이내 한을 시내 바람에 실어 보내노라.
 待郎行盡溪邊路, 그대를 기다리노라 시냇가 길을 다 걸어 다니다가
 笑入垂楊避釣翁. 낚시꾼을 피하노라 웃으며 수양버들로 들어가노라.
 (<寄情>)

이 시는 왕생과 사귀기 전에 왕생을 멀리서 사모하면서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詩人은 가슴 가득한 깊은 정으로 임과 서로 만나기를 기대하지만

31) 손가락에 먹을 묻혀 쓴 글씨로서, 온완은 이 염지서에 뛰어났다고 한다.

한 줄기 작은 시내가 두 사람의 만남에 장애가 된다. “雙眸寄恨托溪風”은
 임이 있는 시내 건너편을 애타게 바라보지만 임은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셋째와 넷째 구에는 특히 온완의 임에 대한 그리움
 이 잘 나타나 있으니, 임을 찾아 온 시내를 다 헤매고 다니니 낚시꾼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게 되고 그 낚시꾼을 과하려 수양버들 아래로 숨는다는
 것이다. 이 두 구는 사랑에 대한 갈구와 그러한 과정을 즐기는 듯한 여성
 다움이 묻어나는데, 특히 기녀로 살면서 양가녀로서의 삶을 꿈꾸어왔던 온
 완의 지난 세월과 대조되면서 애뜻한 연민마저 느끼게 된다. 鍾惺은 이 시
 의 앞 두 구에 대해 “한스러움을 부치는데 또 시내 바람에 의탁하니 매인
 정이 끝이 없고 말 또한 예쁜 기세를 감추고 있다”라고 했고, 뒤의 두 구에
 대해서는 “장난인 듯 진짜인 듯 (그 감정이) 들쭉날쭉 계속 이어진다.”³²⁾
 고 평했다. 즉, “媚氣”조차 감출 정도로 “恨”과 “情”이 깊은데 또 “似戲似
 眞”한 것이 마치 사랑하는 임과 장난치는 듯한 느낌조차 든다는 것이다.
 온완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또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다.

深紅出水蓮, 질붉은 봉우리가 수련에서 올라오는데
 一把藕絲牽. 한 줄기 연뿌리가 끌어당기고 있구나.
 結作青蓮子, 푸른 연밥을 맺었는데
 心中苦更堅. 그 가운데는 쓰고도 단단하구나.(〈詠蓮〉)

“藕絲”와 “蓮子”는 각각 사랑의 지속과 괴로움을 비유하는데, “藕絲”는
 “藕斷絲連”으로, 연뿌리가 끊어져도 그 속에 엉겨 붙어 있는 실처럼 입과
 떨어져 있지만 정은 그대로라는 것이며, 그 밑에서 솟아 나온 연밥은 쉽게
 이를 수 없는 자신의 사랑처럼 “쓰고도 단단(苦更堅)”하다는 것이다. 그녀
 는 연 뿌리 속에 엉겨 있는 끈적한 실로써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랑은
 이어짐을 비유하고, “蓮子”의苦苦(쓴 맛)로써 사랑의苦苦(괴로움)를 비유하고

32) 《名媛詩歸》 卷21: “恨且寄, 又托溪風, 系情難已, 語亦藏媚氣. / 似戲似眞, 纏綿不定.”

있으니, 그 비유가 매우 적절하고 절묘하다.

이러한 괴로운 과정을 거쳐 온완은 마침내 왕생의 마음을 얻고 사랑을 이루었는데, 그 사람은 균계일화과도 같고 ‘蘭薰’을 풍기는 사람이다.

鶴未遠鷄群, 학이 아직 닭 무리 속에서 멀리 있지 못하니
 松梢待拂雲. 소나무 가지 끝에서 구름 떨치며 솟아오르기를 기다리는 듯.
 憑君觀野草, 그대에게 기대어 들풀을 살펴보니
 內自有蘭薰. 그 안에 저절로 난초의 향기가 나는구나.(〈書懷〉)

이 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온완이 사랑하는 사람, 즉 왕생일 것으로 여겨진다. “鶴”과 “蘭”은 왕생을 비유하는 것으로, 지금은 “群鷄” 속에 섞여있고, “雲”에 가려져 있지만 “野草”와는 달리 “蘭薰”이 풍기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존경이 느껴지며, 특히 군자를 상징하는 “蘭薰”을 강조함으로써 온완의 유가적 이상과도 부합되는 사람임을 던지시 말하고 있다.

架頭輕拂隔年塵, 시령 머리에 격년의 먼지를 가볍게 털어내니
 隨手清風快大賓. 손 따라 일어나는 맑은 바람이 큰 손님 즐겁게 한다.
 願得不遭秋棄擲, 원컨대 가을이 되어 버림받는 일을 겪지 않길.
 團圓穿作掌中珍. 둥근 부채를 손바닥 속의 보석처럼 차도록 만든다.³³⁾
 (〈尋扇〉)

이 시는 소중하게 얻은 사랑에 대한 염려를 표현하고 있다. 첫째 구는 오래 동안 그리던 사랑을 찾았다는 비유이며, 둘째 구는 그에 따르는 즐거움을 비유했다. 가을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생긴다는 비유로서, 가을이 와서 부채를 내팽개치는 것처럼 버림받지 않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손 안에 늘 갖고 다니는 보석에다 비유하여 자신을 빛나게 만들어서 버림받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왕생은 멀리 종군의 길을 떠나게 되고,

33) 唐代 여성들은 대부분 몸에 차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해가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건만 입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자연계의 산과 물, 따뜻한 봄의 붉은 살구꽃, 눈 꽃 속에 핀 매화 등은 모두 그녀의 그리움을 촉발시키는 매개로서 아름다운 추억을 불러일으키니,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왕생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縱步來芳圃, 이리저리 꽃밭을 걸어 다니니
尋春亦有功. 봄을 찾는 것도 공이 드는구나.
雪消梅蕊日, 눈이 녹고 매화 꽃술이 피는 시절이니
煙淡杏梢紅. 얼은 안개 속에 살구 가지 붉구나.
箋管吟情處, 종이에다 붓으로 정을 노래 할 적에
池亭物態融. 연못과 정자의 物態가 융화되는구나.
去年人不見, 지난해의 그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
無緒繞幽叢. 뒤숭숭한 마음 그윽하게 얽혀 뭉쳐있구나.(〈探春有憶〉)

입이 없이 홀로 꽃밭 속을 거니노라니 입과 노닐던 “池亭” 주위에도 “物態”가 융화된다. 그러나 그 속에 “去年”에 함께 노닐던 그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 뒤숭숭한 마음이 꽃 무더기처럼 뭉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입이 언제쯤 돌아올까 짐쳐보기도 한다.

小花靜院東風起, 작은 꽃 핀 조용한 집에 동풍이 부니
燕鶯鶯拂桃李. 쌍쌍의 제비와 피꼬리가 복사꽃 오얏꽃을 떨며 노니네.
斜倚紅牆卜遠人, 붉은 담에 기대어 멀리 떠난 임 돌아올 날 짐쳐 보나니
樓外春山幾千里. 누대 밖 봄 산은 수천 리 밖에 있구나.(〈寄遠〉)

입이 없으므로 “靜院”이라 표현했는데, 게다가 “東風”이 불면서 쌍쌍의 제비와 앵무새가 복사꽃과 오얏꽃 사이를 오가며 노니니, 입이 더욱 그립다. 그래서 담장에 기대어 임이 떠난 먼 곳을 바라보며 오실 날을 헤아려 보지만 입이 계신 누대 너머 “春山”은 “幾千里” 멀리 떨어져 있다. 鍾惺은 이 시를 “한가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갑자기 느끼는 바가 있으니, 아득히

멀리 떠난 입을 그리워하며 곡절하게 정이 이른다.”³⁴⁾라고 칭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과 노닐던 정자 꽃밭에 까치가 날아와 지저귐다.

暗喜亭花上, 몰래 기뻐하노니 정자 꽃 위에
 喳喳喜鵲來. 짹짹 지저귀는 까치가 왔구나.
 良人在何處? 그리운 임은 어디 계신고?
 雲雨滿陽臺. 雲雨가 陽臺에 가득 차 있거늘.<偶題>

까치가 울면 그리운 사람이 돌아온다는 속설을 이용하여 임이 곧 오실 거라는 자기 위안을 하고 있다. ‘운우’가 ‘양대’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임과 노닐던 그 누대에 임과 함께 나누었던 ‘雲雨之情’이 그 옛날처럼 가득하다는 중의적 표현이다.

은완의 이러한 오랜 그리움 끝에 들려온 소식은 王生이 전사했다는 소식이니, 그녀는 매우 비통해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슬픔을 안고서도 왕생을 자신의 남편으로 여겨서 그를 제사지내고 스님을 불러 송경하는 등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를 다하고 절조를 지켰다.

V. 나가며

은완 시의 기본적 바탕은 어릴 때부터 쌓아온 유가 학문과 그에 따른 선비적 인격이다. 유가적 도덕을 바탕으로 한 선비적 풍격은 그녀의 시를 자존감과 고상함이 느껴지도록 만들었다. 거기에다 유가적 이상에 따른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소망은 그녀를 사랑에 눈뜨게 하면서 또 어느 여성시인 못지않은 섬세하고 완곡하며 정감 있는 애정시를 짓고 있다. 은완 시의 이 상반되는 두 경향은 그녀 시의 다채로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남아 있는 시가 30수에 불과하지만 “간혹 스스로 가사를 지으면 淸雅하면

34) 《名媛詩歸》 卷21: “從閑靜中忽有感觸, 悠然思遠, 曲折情至.”

서도 뜻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없는 경지에 이른다”³⁵⁾다는 평을 받았다.

온완은 기녀 신분으로서 “天下談說之士” 사이에 “從遊蓬島宴桃溪, 不如一見溫仲圭(蓬島로 놀러가고 桃溪에서 연회하는 것보다 溫仲圭를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명성을 얻었으며, “翰墨을 잘 하고 孟軻書에 자못 능통하며 특히 詩筆에 뛰어났다.”³⁶⁾는 평을 들은 유가의 선비였다. 따라서 張 太守도 그녀가 남자였다면 반드시 장원급제했을 것이라며 “계수 나무 가지를 佳人이 꺾도록 허락한다면 마땅히 甘棠의 女狀元이 되었으리라(桂枝若許佳人折, 應作甘棠女狀元)”라고 칭찬했다. 온완은 늦게 시를 배웠지만 “多驚句” 하여 關中에서 淮甸까지 “人人爭傳誦” 하였으니³⁷⁾, 蔡子醇도 “淸虛子가 琬이 詩에 능하여 驚句가 많다고 했는데, 믿을 만하다. 내가 일찍이 방문하여 완의 시를 얻었는데, 겨우 삼십 편을 얻었지만 말마다 모두 묘하니 한갓 입과 귀의 끝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³⁸⁾고 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온완 시도 보통 기녀시인처럼 절구시, 그 중에서도 칠언절구시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녀시인들에게 절구시가 많은 것은 절구시의 歌唱性 때문이니, 기녀들은 연석 상에서 가창할 필요가 많았기 때문이다.³⁹⁾ 그러나 온완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할 것이니, 온완은 일반적인 문기나 예기들이 하는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실제 “性不樂笙竽” 하

35) 淸虛子, <甘棠遺事>(《靑泥蓮花記》 249쪽): “或自爲辭, 淸雅有意, 到人所不及之地.”

36) 앞의 글(《靑泥蓮花記》 251쪽): “某聞天下談說之士相聚而言曰, ‘從遊蓬島宴桃溪, 不如一見溫仲圭.’ ……或謂其善翰墨, 頗通孟軻書, 尤長于詩筆.”

37) 이상 앞의 글(《靑泥蓮花記》 249쪽)

38) 蔡子醇, <甘棠遺事後序>(《靑泥蓮花記》 254쪽): “淸虛子謂琬能詩, 多驚句, 信矣. 予嘗訪得琬詩, 僅得三十篇, 言言皆妙, 不徒發之口耳之末云.”

39) 줄고, <당대 기녀 - 시인과 시가전파자로서의 만능 엔터테이너>(《중어중문학》 제31집, 2002.12.)

다거나 또 “性雖不喜謳歌” 하다고 하여 천성적으로 음악을 즐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송대 가창 양식인 詞 작품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창을 위해 지었거나 가창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일반 기녀시인들의 시가 주로 이별을 슬퍼하거나 그리움을 표현하는 곱고 여린 감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비해, 온완의 시는 고상함과 고결함, 은일의 추구 등이 주를 이루며, 애정시조차도 절제된 감정을 은유적이고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니, 내용적으로도 가창과는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앞서 제기한 기녀문인으로서의 특이한 창작편력의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온완의 시를 보면 정통 유가 교육을 받은 사대부문인 시의 풍모를 느낄 수 있으니, 따라서 기녀 역할을 할 때 필요한 詞보다는 정통 사대부들이 최고의 전당이라고 여기는 詩만을 지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온완이 지었다는 500수의 시가 전해지지 않아서 그 전체 면모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이처럼 이 30수만으로도 온완 시의 다채로운 내용과 비범한 특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이다.

<參考文獻>

- 梅鼎祚 纂輯·陸林 校點, 《青泥蓮花記》, 黃山書社, 1998.
 鍾惺, 《名媛詩歸》(36卷), 明刻本.
 陸昶, 《歷朝名媛詩詞》(12卷), 乾隆38年刻本.
 蘇者聰, 《宋代女性文學》, 武漢大學出版社, 1997.
 王延梯, 《中國古代女作家集》, 山東大學出版社, 1999.
 王寧, 《宋元樂妓考》, 新星出版社, 2003.
 謝無量, 《中國婦女文學史》, 台灣中華書局, 1928.
 王書奴, 《中國娼妓史》, 生活書店, 1934.
 譚正璧, 《中國女性文學史話》, 百花文藝出版社, 1984.

- 陶慕寧, 《青樓文學與中國文化》, 東方出版社, 1993.
- 陳曉藝, <命蹇情殤詩愈工—論薛濤和溫琬>, 華中師範大學 2000.12. (《黃石教育學院學報》第19卷 第1期 / 第2期)
- 陳曉藝·周茶仙, <論宋代女詩人溫琬詩歌中美的意蘊>, 《江西社會科學》 2005.6.
- 권응상, <溫琬의 삶과 문학예술>, 《중국어문학》 제55집, 2010.06.
- 權應相, <唐代歌妓與文人交感及詩風變遷>, 《南京師大學報》 2001年 第5期.
- 권응상, <당대 기녀시인의 범위와 문학사적 성격>, 《중국어문학》 제38집, 2001.12.
- 권응상, <당대기녀 - 시인과 시가전파자로서의 만능 엔터테이너>, 《중어중문학》 제31집, 2002.12.
- 권응상, <송대 기녀문인과 그 문학사적 성격>, 《중국어문학》 제53집, 2009.06.
- 권응상, <송대 기녀의 문학 예술적 역할 규명을 위한 시론 - 사의 형성과 발전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51집, 2008.06.

<中文提要>

溫琬詩之底蘊來自自幼修得的儒家學問和隨之產生的儒生人格。以儒家道德為基礎的儒生風格成為溫琬詩詞底蘊，使她的詩句充滿自尊心與高尚意味。並在此基礎上，溫琬為完結儒家理想而想建立美滿家庭的夙願使她在情愛方面大為蘇醒，所以吟詠了不次於任何女詩人的細膩委婉而充滿感情的詩句。溫琬詩句這兩種相互抵觸的傾向更加襯托了詩的豐富多彩，雖然僅存留詩句30首，但是受到了‘或自為辭，清雅有意，到人所不及之地’的好評。

溫琬雖為妓女身份，但天下談說之士給予了她“從遊蓬島宴桃溪，不如一見溫仲圭”之美譽，是被評為‘或謂其善翰墨，頗通孟軻書，尤長於詩筆’的儒家儒生。所以張太守也說到若為男兒身必定狀元及第，還稱贊道‘桂枝若許佳人

折，應作甘棠女狀元’。溫婉雖吟詩較晚，但因“多驚句”致使關中至淮甸“人人爭傳誦”，所以蔡子醇也言道“清虛子謂婉能詩，多驚句，信矣。予嘗訪得婉詩，僅得三十篇，言言皆妙，不徒發之口耳之末雲”。

比起其他妓女文人主要吟誦歌唱爲主的詩詞，當今僅留了溫婉的士大夫意蘊之詩，這也是其獨特的特點之一。溫婉的這種以儒家學問爲底蘊而具有儒生風格或強烈自尊心的同時還融入女性細膩柔弱情感的深情詩句，可以說是在其他妓女文人之中難以尋覓的溫婉詩之特征。雖因溫婉所吟的500首詩句未能流傳，而不能理會整個面貌，但從這30首之中也可以充分領會到溫婉詩句豐富多彩的內容和非凡的特征。

주제어 : 溫婉, 妓女詩人, 儒家學問, 自尊心, 高尚, 愛情詩

